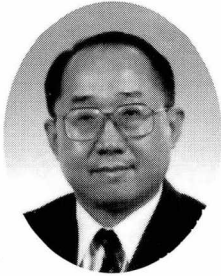


21세기를 향한 해외건설 발전 과제



저 자 약 령

- 해외건설협회
- 정보지원본부장
- 상무이사

소 재 오

1. 해외건설 현황

흔히들 성수대교 붕괴, 삼풍아파트 붕괴, 경부 고속전철 부실 등 크고 작은 국내 건설의 부실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세계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국내에서는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는다. 이러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건설의 현황, 전망 그리고 국내외 구분이 없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해외건설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1965년 11월 2일 태국의 「파타야-나라티와트」 간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문을 연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지난 6월 30일 까지 과거 32년간 3,723건에 138,137백만불 규모의 수주를 하였으며 금년에 만도 89건 7,127억불 수주를 하여 지속적인 발전추세에 있다.

한편 우리의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92개 기업이 세계 49개국에서 466건의 400억불 규모의 공사를 시공중으로 시공잔액은 245억불

규모이고 우리 인력은 5,758명이 진출했으며 외국인 고용은 60,259명으로 전인력투입은 66,017명이다.

또한 지역별 진출현황은 아시아 지역은 73%, 중동 6%, 기타 19%로 아시아지역 편중이 심하며 진출을 많이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폴란드, 태국 순이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고 발전소를 비롯한 플랜트 공사가 37%, 토목공사는 20%이고 나머지는 전기통신, 용역 등이다.

잠시 우리 해외건설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60년대 후반은 주로 베트남, 동남아 각국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진출한 해외건설 개척기라고 할 수 있고,

이후 73년 사우디에 진출한 이후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는 연간 100억 이상의 수주 ('81년 137억불)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건설 중흥기였으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중동 경기 퇴조와 함께 우리 해외건설도 침체에 빠져들었다. ('88년 16억불 수주)

그러나 '93년 이후 동남아 각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SOC개발과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도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어 국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여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발전 추세에 있어(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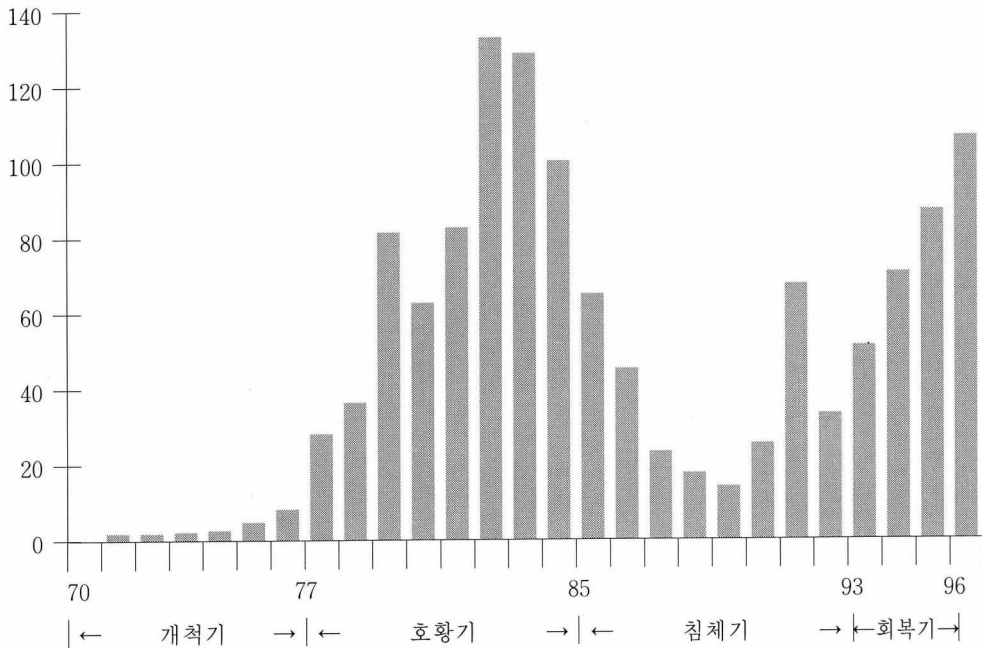
금년 6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의 수주증가를 이루고 있다.

년도별 수주 추이

(단위 : 억불)

년 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6말
수주액	16	24	67	30	27	51	74	85	108	71

* '97 수주액은 125억불 예상



여기서 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살펴보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는 매년 10~20억불의 외화를 가득하여 우리나라 석유 위기를 극복하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였고, 80년대 초반에는 연간 직접고용 15만 명과 고용유발 30~60만명으로 고용증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을 통한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여러나라들과 수교에 가교역할, 국내 건설기술 향상은 물론이고 금융, 수송 등 연관 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크다 하겠다.

또한 우리 손으로 이룩한 세계 3,700여개

프로젝트중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도 수없이 많아 대표적인 것을 몇개 소개하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계약액 100억불)는 사하라 사막을 옥토로 바꾸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이고,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빌딩은 전세계 최고층건물(446m)이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싱가포르 래틀즈 시티, 아시아 최장 교량인 말레이시아 페낭교,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등 수없이 많은 구조물들이 세계 관광명소가 되기도 하고 건설공사를 통하여 발주국 정부 또는 저명한 건설 유관기관으로 부터 포상을 받은 사례도 적지않아 전세계적으로 한국 해외건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해외건설 환경 변화와 우리의 수주 전망

WTO체제의 진전과 세계 각국의 의욕적인 경제발전 추진 등으로 해외건설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세계은행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8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향후 10년간 인프라 투자소요는 약 1조 5천 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서남 아시아에서도 1조불, 중남미지역 6천억불, 중동·북 아프리카 지역에 3.5천억불 규모가 소요될 것 이란 전망을 하고 있어 러시아를 비롯한 동 구권 지역까지 포함하면 같은기간 전 세계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소요는 3~4조불 규모

개도국의 인프라 실태

국 가	전 력 소 비 (Kwh)/인	전 화 /1,000인	도 로 포 장 (km)/백만명	용 수 공 급 율 (%)
베 트 남	139	2	-	50
인 도	373	8	893	75
미 양 마	61	2	210	33
중 국	647	10	-	71
인 도 네 시 아	233	8	160	42
필 리 핀	419	31	242	81
브 라 질	1,570	71	929	86
칠 레	1,646	94	808	87
멕시코	1,381	80	1,019	78
미 국	12,900	464	14,453	100
일 본	7,211	449	6,426	100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추정한 해외건설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다.

1997년	2000년	2006년
2,000억불	3,500억불	5~6,000억불

다음으로 큰 여건변화는 이러한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금융요구 프로젝트의 증가와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의 민간역할 증대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인프라 개발의욕은 큰데 비하여 투자재원의 한계를 가지며 정부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예를들면 정부는 민간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민간참여가 어려운 국민보건위생, 국민교육, 국민복지 등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는 설)에 따라 민간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의 전문가들은 개도국의 인프라개발에 있어 향후 10년내 민간참여(재정동원 포함)가 70%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는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셋째로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선진기업의 참여폭의 증대와 역할 증대가 예상된다.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선진 대형업체의 경쟁력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더우기 금융동원 능력과 프로젝트 개발능력이 앞선 업체가 전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몇년간의 미국, 일본, 영국, 불란서, 이태리, 독일 등 선진 6개국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93	'94	'95
75.4%	80.7%	78.9%

넷째로는 개도국들의 자국보호정책의 강화와 단순시공능력의 급신장이다. 정보조달 협정 미가입 개도국(현재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22개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국 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정책을 실시중이며 또한 개도국업체들의 시공능력도 급신장하여 대부분의 단순시공 분야에선 우리와 큰 차가 없으며 특히 가격면에서는 우리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저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중국 건설시장은 우리기업의 직접시공을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외국 차관공사 제외) 설사 허용한다 해도 가격 경쟁면에서 월등한 입장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우리의 수주전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억불)

	'97	'98	'99	2000년
낙관적 예측	125	172	201	230
비관적 예측	125	121	129	138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3. 해외건설 발전과제

이러한 해외건설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우리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는 프로젝트 개발능력의 제고이다.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를 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저임금을 앞세운 개도국의 추격과 기술과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앞세운 선진국 틈사이에서 운신폭이 점점 줄어들어 우리의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방향전환을 서둘러, 금융동원 능력, 기술능력과 우리의 창의력을 혼합하여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수주능력을 넓혀가야 한다. 프로젝트 개발에

는 프로젝트의 발주에서 부터 타당성조사(기술적, 경제적)를 거쳐 기획력을 동원한 기본설계를 한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양허(Concession Agreement)를 받은 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을 동원하고 건설과 완공후 운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과정을 거쳐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감소대책과 참여자들간의 공정한 위험과 이익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참여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둘째는 국제금융동원능력 제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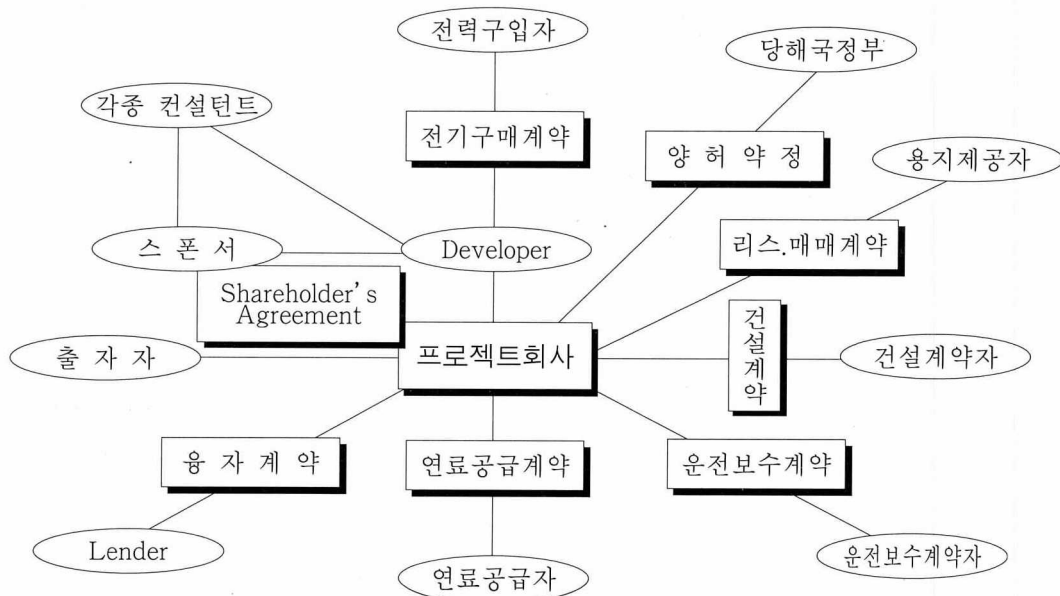
전통적 개념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체의 능력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입찰, 계약이행, 선수금, 하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담한후 선수금을 수령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기성을 수령하는 순환으로

이루어지나, 이제는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기법에 의해 금융동원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전망에 있어, 금융동원 능력이 수주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젝트 수익성 자체가 담보이고 발주처의 보증이나 건설업체의 능력은 감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는 시공자나 발주자의 상대가 상당부분 감안되나 앞으로는 점점 프로젝트 자체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 여하튼 프로젝트 자체를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도록 개발하고 능력있는 파이낸싱 어드바이저(Financing Adviser)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금리와 상환조건)의 금융을 동원하는 것이 공사수주의 주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셋째는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투자개

투자개발형공사의 참여자간의 관계(전력, BOT)



발은 그 과정도 복잡하지만 수없이 많은 참여자가 관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프로젝트 개발은 각 분야별로 가장 경쟁력있는 기업간의 협력을 전제로한 공동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진기술보유자, 설비제조업자, 시설운영자, 건설업자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금융, 법률전문가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의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현지화의 적극적 추진이 요망된다 하겠다.

넷째는 정보능력의 제고이다.

모든 경쟁의 출발은 정보에서 비롯된다. 정확하면서도 한발 앞선 정보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단독으로 입수 가능한 것이 있고 기업단독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의 입수에는 관, 민이 일체가 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는 국제금융기관, 국제적인 컨설팅회사, 정보취급기관과 제휴하고 관, 민이 입수한 각종정보를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에 서비스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이라 할 수 있다.

기술력의 확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확실한 경쟁요소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경쟁력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 대학원 교육과 각종 기능교육이

국제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나 우선 단기 과정으로 국제계약, 국제금융, 프로젝트 관리·경영, 프로젝트 개발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과제 이외에도 아국 업체간의 협력, 정부의 외교적 지원노력, 금융기관의 국제화 등 많은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해외건설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협회단체간의 확실한 역할분담과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앞서 지적한대로 세계시장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 분명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각국의 진입장벽도 완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의 시장 구분도 없어진다 하겠다.

국경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에서 생존하고 발전을 거듭하기 위한 과제는 투자개발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일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기업(정부의 간접지원)이 조속히 구조조정을 이룩한다면 21세기초에는 연간 300억불 내외의 해외건설 수주로 우리나라 수출전략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편중된 진출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5대양 6대주의 전세계 각국의 경제개발과 시민생활 향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한국 해외건설로 다시말해 세계인의 환영을 받는 한국 해외건설로 다시 태어나고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손으로 이룩한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쉽게 보게 될 것이다.